


건설안전  
카드뉴스



2022년 상반기  
산업현장 대상  
사망사고 통계

# 2022년 상반기 사망사고

2021년 | 334건(340명)

2022년 | 303건(320명)



2021년 상반기 대비 31건(9.3%), 20명(5.9%) 감소

#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

건설업

48%

제조업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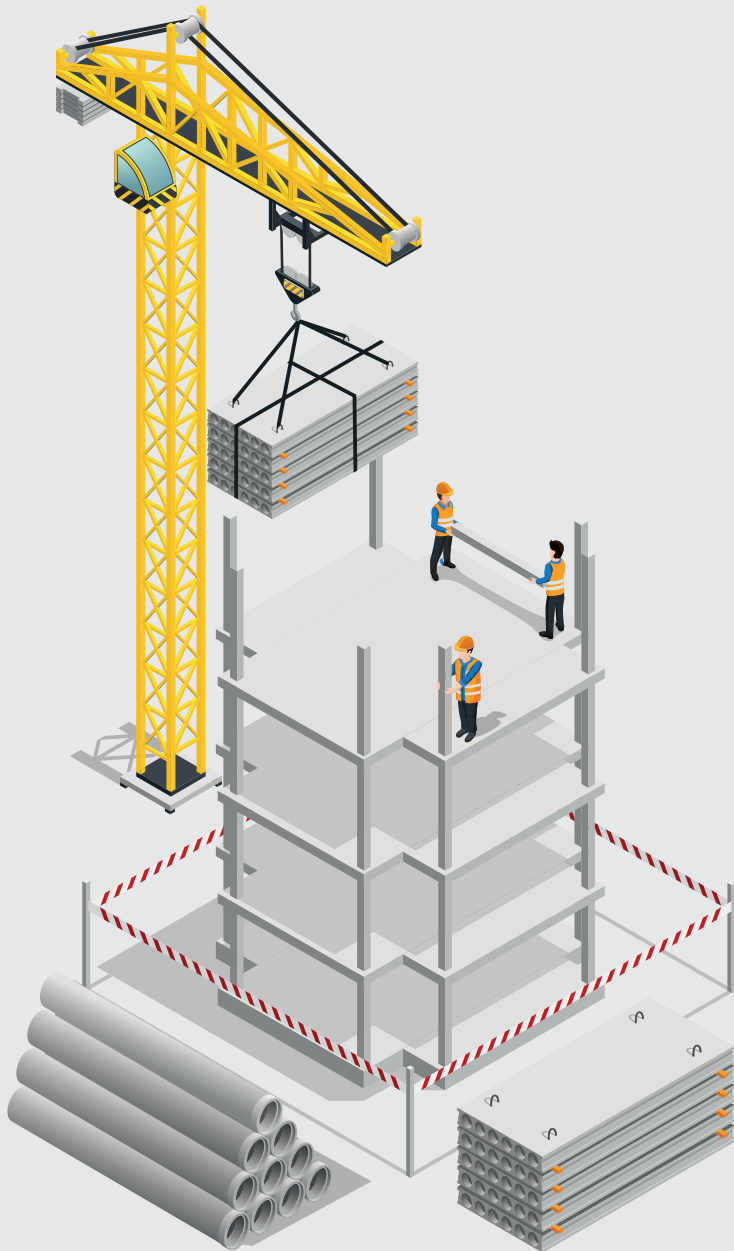


기 타

21%

#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자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 155명 中



---

1위 | 1~20억원      44명 [28.0%]

---

2위 | 1억원 미만      41명 [17.9%]

---

3위 | 800억원 이상      21명 [17.9%]

---

4위 | 20~50억원      19명 [12.3%]

---

5위 | 50~120억원      18명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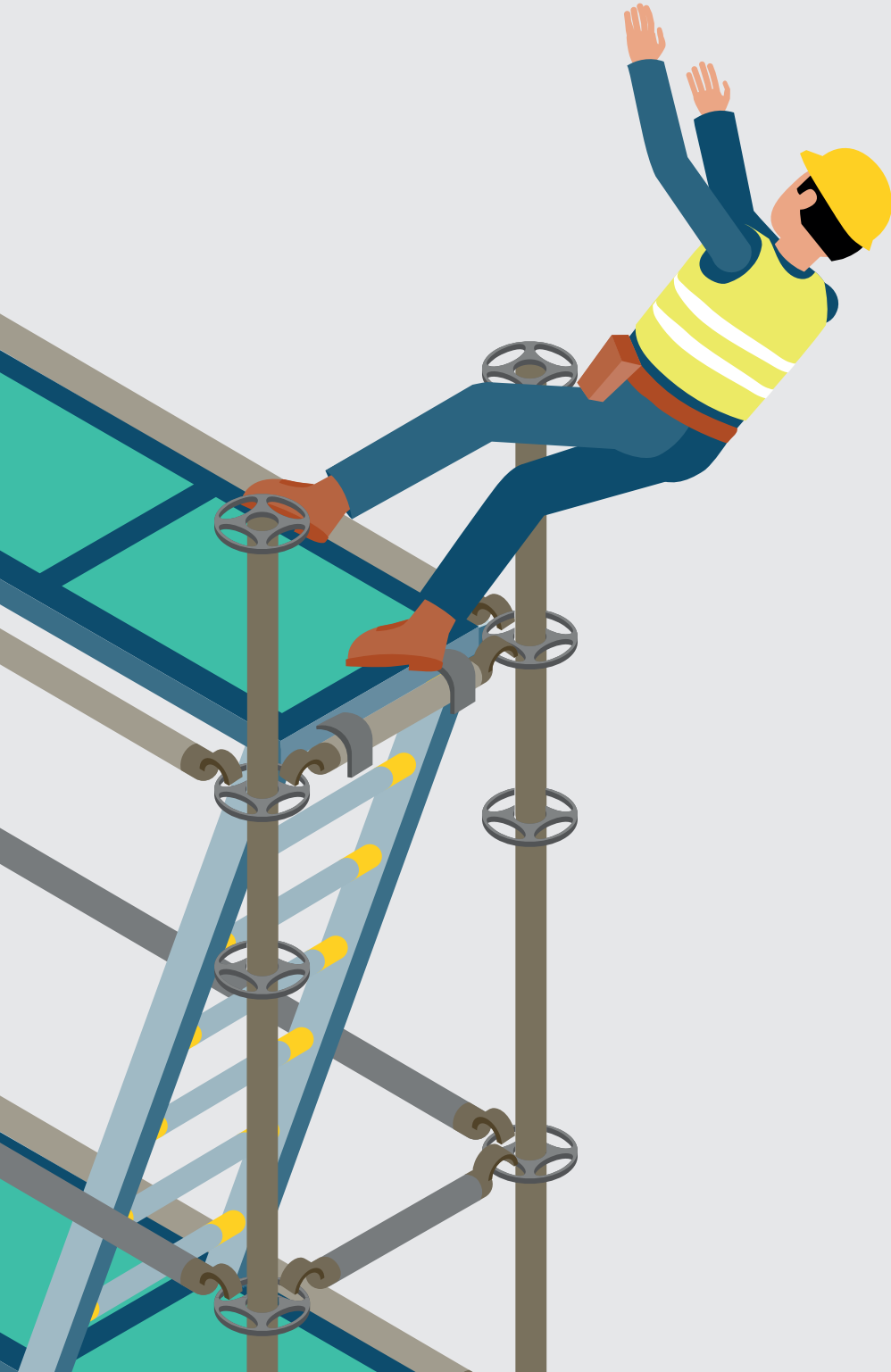
---

6위 | 120~800억원      12명 [7.7%]

---

# 건설업 재해유형별 사망자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 155명 중



---

1위 — | 떨어짐 91명 [58.7%]

---

2위 ▲ 3 | 끼임 16명 [10.3%]

---

3위 ▲ 1 | 물체에 맞음 14명 [9.0%]

---

4위 ▼ 1 | 기타 13명 [8.4%]

---

5위 ▼ 3 | 무너짐 11명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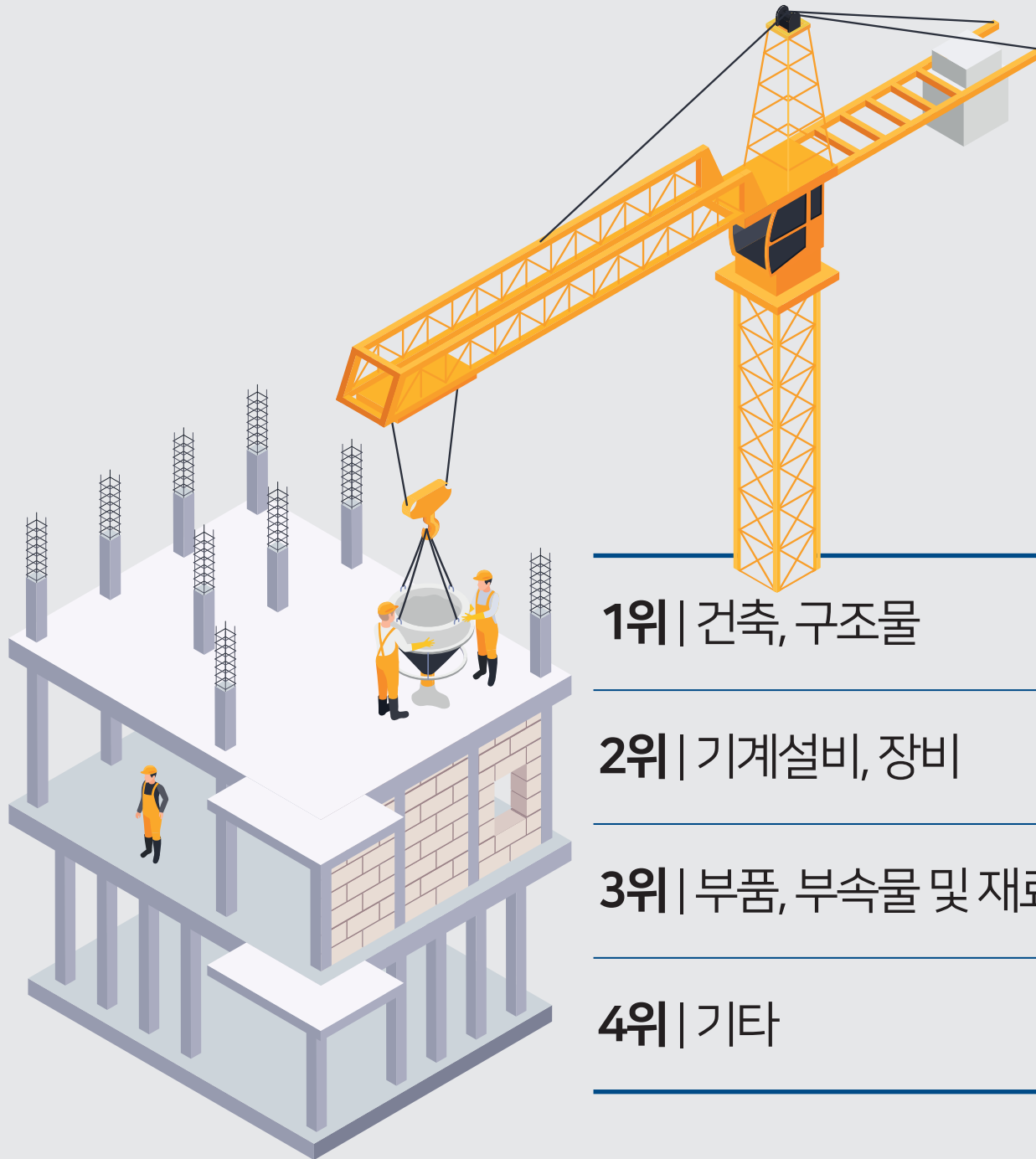
---

6위 — | 깔림, 뒤집힘 10명 [6.5%]

---

# 건설업 주요 기인물별 사망자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 155명 中



---

1위 | 건축, 구조물 94명 [60.6%]

---

2위 | 기계설비, 장비 47명 [30.3%]

---

3위 | 부품, 부속물 및 재료 8명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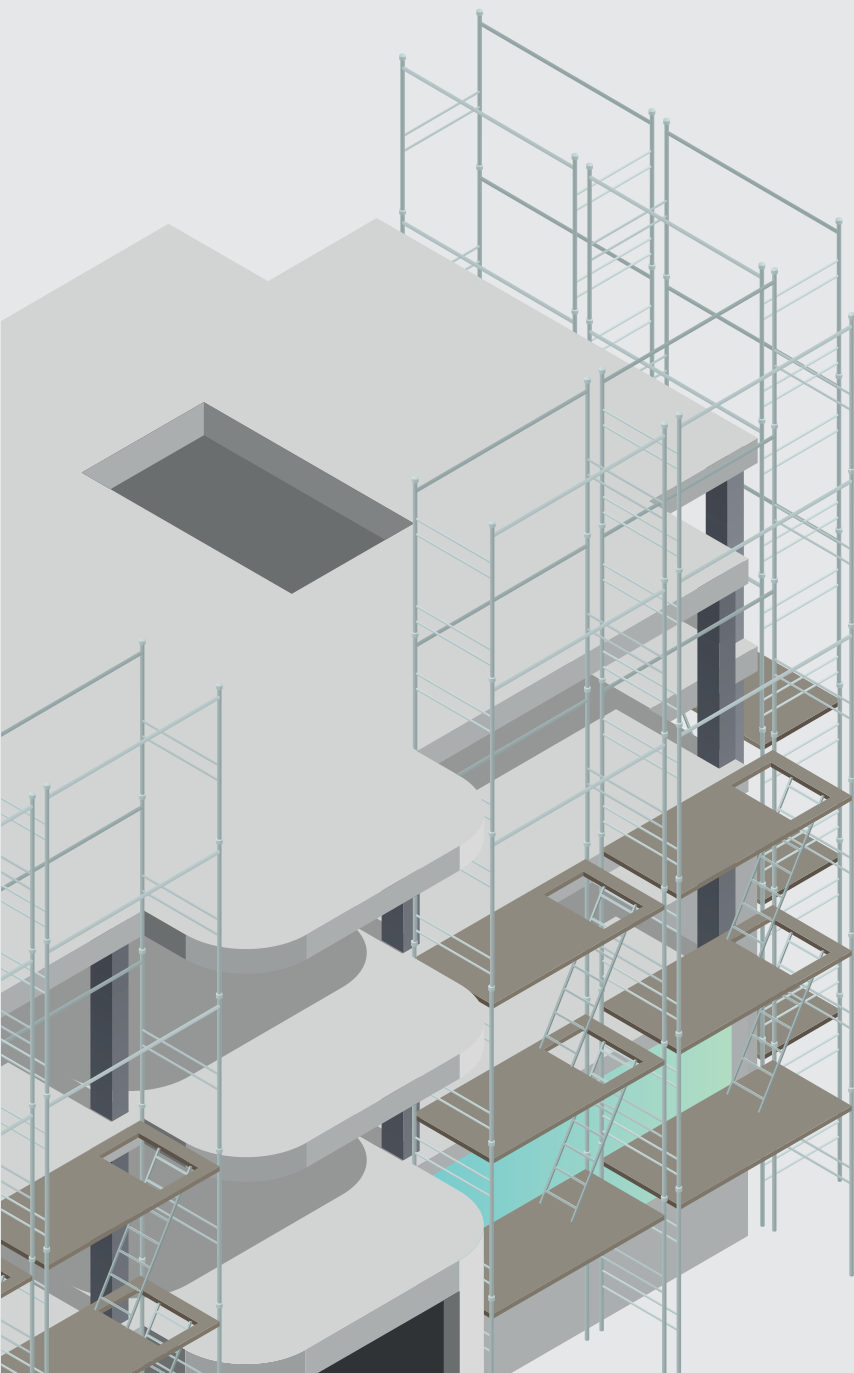
---

4위 | 기타 6명 [3.9%]

---

#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 사망자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 155명 中



---

1위 — | 단부, 개구부 22명 [23.4%]

---

1위 ▲ 1 | 비계, 작업발판 22명 [23.4%]

---

3위 ▲ 2 | 지붕, 대들보 15명 [16.0%]

---

4위 — | 거푸집, 동바리 9명 [9.6%]

---

5위 ▲ 1 | 계단, 사다리 8명 [8.5%]

---

6위 ▲ N | 철골빔, 트러스트 5명 [5.3%]

---



# 건설업 설비기계·장비 세부 기인물별 사망자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 155명 中



1위 ▲2 | 굴착기 11명 [23.4%]

2위 — | 고소작업대 10명 [21.3%]

3위 ▲2 | 리프트 6명 [12.8%]

3위 ▲3 | 기타 6명 [12.8%]

5위 ▼4 | 트럭류 5명 [10.6%]

6위 ▼2 | 이동식크레인 5명 [10.6%]

7위 ▲N | 콘크리트 펌프카 3명 [6.4%]

8위 ▼1 | 타워크레인 1명 [2.1%]

#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1위 ▲2	기타 미준수 사항	131명 [29.6%]
2위 ▼1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	108명 [24.4%]
3위 ▼1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70명 [15.8%]
4위 ▲N	위험기계·기구안전조치 미실시	53명 [12.0%]
5위 ▼1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42명 [9.5%]
6위 ▲N	양중기 및 하역기계 등 안전기준 미준수	39명 [8.8%]

# 전국 17개 광역자치시도별 사망사고

지역	사망자	증감
서울	19명	-4
부산	13명	-2
대구	11명	+1
인천	20명	-5
광주	08명	0
대전	02명	-1
세종	00명	-3
울산	13명	+2
강원	14명	-5

지역	사망자	증감
경기	81명	-13
충북	16명	+5
충남	39명	+20
경북	20명	-9
경남	29명	-9
전북	08명	-4
전남	23명	+5
제주	04명	+2

2022년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작년 상반기에 비하여 다소 감소  
하였으며,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크게 두드러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안전 중심 경영문화정착을 위해  
노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 안전사고사례

---

삼포산업  
석재채취장  
토사붕괴사고



# 사고 내용

분지형태의 채석장에서 천공작업으로  
석산 꼭대기의 토사 30만 m<sup>3</sup>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 매몰로 인한 사망





## 주요 원인

---

1. 장기간 슬러지 방치 (20년)
2. 신규 업무담당자 교육미이수
3. 안전망 및 기타 안전관리 미흡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  
경영책임자 이종신대표  
기소의견 검찰송치  
—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 미디어 속 안전

---

첫 아시안 슈퍼히어로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속

# 불량비계

지난해 9월 개봉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첫 아시안 슈퍼히어로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에서는 대나무가 무려 고층빌딩 외벽에 설치된 비계로 사용되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아찔했던 그 장면에는 어떤 불안전 요소가 있었을지 살펴보자.

시무 락우 아콰피나 WITH 양자경 AND 양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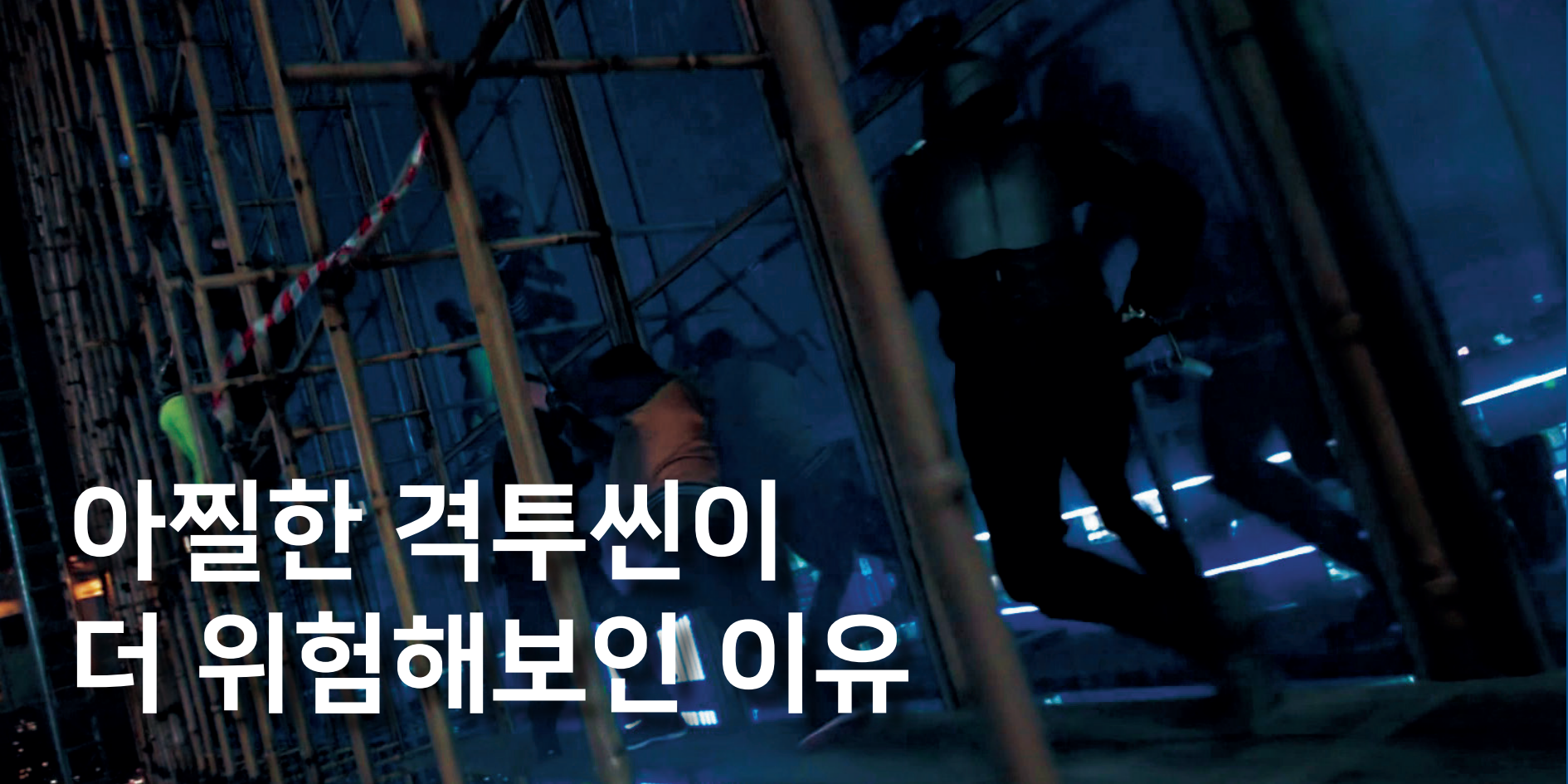
MARVEL STUDIOS

# 상치

와  
텐 링즈의 전설

MARVEL STUDIOS PRESENTS A FILM BY DESTIN DANIEL CRETTON "SHANG-CHI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 SIMU LIU ANKWAFINA MENGHER ZHANG FALA CHEN FLORIAN MUNTEANU BENEDICT WONG  
WITH MICHELLE YEOH AND TONY LEUNG PRODUCED BY SARAH HALLEY FINN, CSA AND DAVID JORDAN EXECUTIVE PRODUCERS ANDY PARK AND CHRISTOPHER TOWNSEND EDITOR ANDREW COOPER PRODUCED BY INDUSTRIAL LIGHT & MAGIC COSTUME DESIGNER KYM BARRETT  
EXECUTIVE PRODUCERS NAT SANDERS, ACE ELISABET RONALDS ÖTTIR, ACE HARRY YOON, ACE PRODUCED BY SUE CHAN EXECUTIVE PRODUCERS WILLIAM POPE PRODUCED BY DAVID J. GRANT PRODUCED BY VICTORIA ALONSO CHARLES NEWIRTH PRODUCED BY LOUIS D'ESPOSITO PRODUCED BY KEVIN FERCE, P.G.A., JONATHAN SCHWARTZ, P.G.A.  
SCREENPLAY BY DAVE CALLAHAN & DESTIN DANIEL CRETTON & ANDREW LANHAM DIRECTED BY DAVE CALLAHAN & DESTIN DANIEL CRETTON & ANDREW LANHAM PRODUCED BY DESTIN DANIEL CRETTON

9월 1일 IMAX 대개봉



# 아찔한 격투씬이 더 위험해보인 이유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 오랜만에 맨주먹으로 싸우는 중국의 무술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물론 무술이라고 해도 주인공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달리는 전차에 매달리고 덩치가 몇 배나 큰 상대를 쓰러뜨리는 건 제아무리 무술 유단자라도 어려운 일이니 말이다.

영화에서 상치는 동생 샤링을 찾기 위해 그녀가 살고 있는 마카오를 찾는다. 샤링이 운영하는 불법격투기장을 찾은 상치, 그리고 상치와 샤링을 좇기 위해 온 웬우의 부하들은 한데 엉켜 시원한 격투씬을 벌인다. 무작위로 덤벼오는 웬우의 부하들을 피하기 위해 상치와 샤링은 빌딩 외벽으로 나오게 되고, 곡예인지 무술인지 모를 아슬아슬한 움직임으로 싸움을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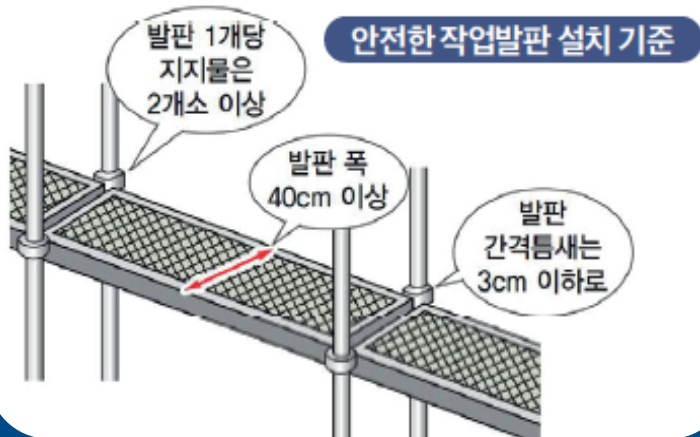




중국이라는 장소의 상징성 때문이겠지만 주인공과 적들이 격투를 벌이는 건물 외벽에는 대나무를 이용한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제대로 된 작업발판은 물론 안전난간도 없는 공간을 날아다니듯 움직이는 장면은 보는 내내 아찔한 스릴을 선사했다. 당신이 초인적 능력의 무술 고단수인 주인공이라면 모를까, 현실에서 저런 비계에는 절대 올라선 안 된다.

## 작업발판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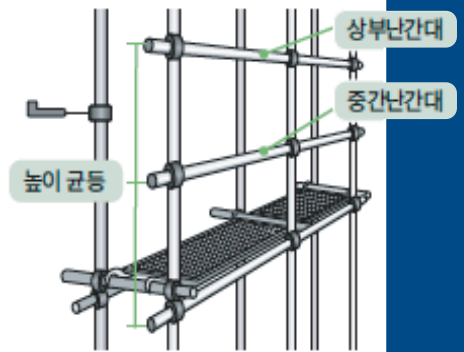
영화 속 작업발판은 사람 한명이 겨우 올라갈 수 있을만큼 폭이 좁아 주변에 개구부가 있다. 또한 작업 발판이 나무로 되어 있어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만큼의 견고한지 확인이 어렵다. 심지어 좁은 나무 발판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비계 위에서 작업할 때는 개구부로 작업자가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강도가 약한 나무 발판의 경우 부서질 수도 있고, 잘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질 수 있다.



## 안전난간 설치 기준

▶ 작업자의 작업발판 등 작업 공간 밖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은 상부·중간 난간대로 구성되며, 상부난간대는 작업바닥면으로 부터 90cm 이상, 중간난간대는 작업 바닥면과 상부난간대 중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안전난간 미설치

비계 기둥을 잡고 돌며 멋지게 발차기를 하는 주인공. 하지만 안전한 비계 위였다면 비계 기둥을 잡고 돌 수 없었을 것이다. 비계 기둥 사이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자는 작업 발판에서 균형을 잃는 경우 밖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 국내 안전 동향

#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경영책임자 교육 대상자는 분기별로 확정한다. 대상자로 확정된 경영책임자는 13개 법인, 대표이사 14명 중 8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 위주로 마련됐다.



#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최

---

안전보건공단은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과 중대법 안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점검과 현장 작동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본사와 현장 간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전담당 임원들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 경영 관련 서한 전달

---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 근로자 수,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공정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된 고위험 기업 CEO를 대상으로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사고 예방 체계를 정착 및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챙겨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예방체계를 구축과 현장에서의 작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CEO가 현장의 안전 상태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줄 것을 강조했다.